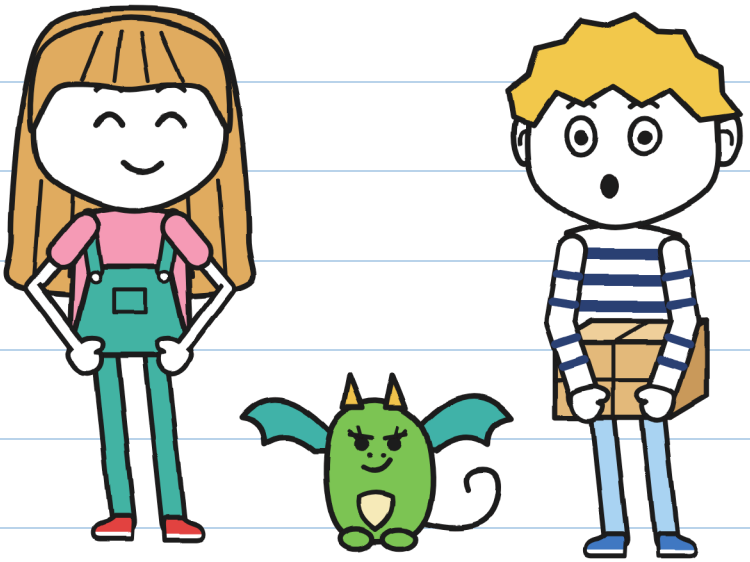
불가능 배달 · 1

이 택배는 문다

LUI ERIKSSON



사이즈 XXS
보고 들어요 · 3+

불가능 배달 · 1
이 택배는 문다

글과 그림 : LUI ERIKSSON

사이즈 XXS · 보고 들어요 · 3+

한국어판: LINGUAULA

초판: 20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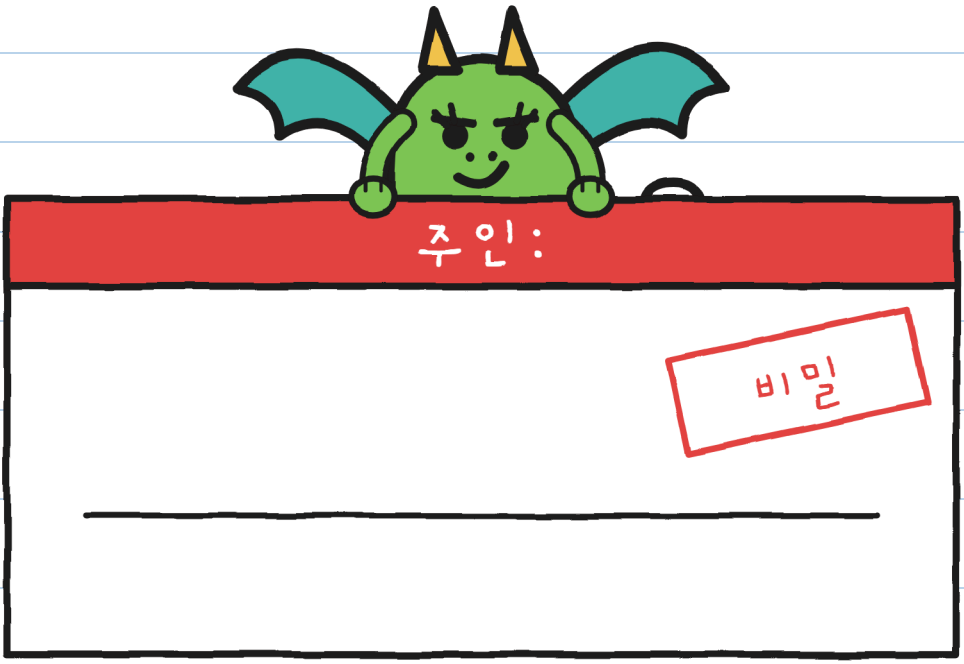
© 2026 LUI ERIKSSON · info@linguaula.com

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.



LinguAula
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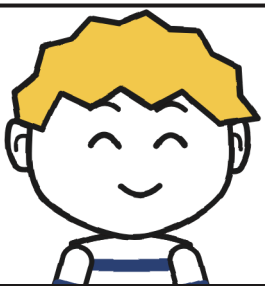


이 책은 누구 거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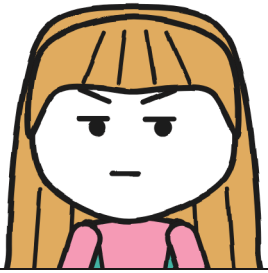
부스러기는 이야기 속에 살아서 무는 거야.

진짜 동물을 만나면 76쪽을 봐. —J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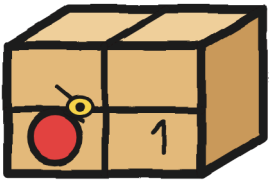
등장인물



구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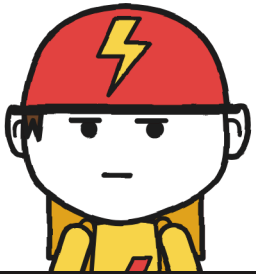
훌리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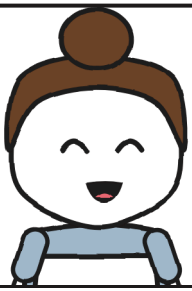
택배



마라



토쇼



엘리아

공책
구니의

이건 구니의 공책이야.

비밀.' -J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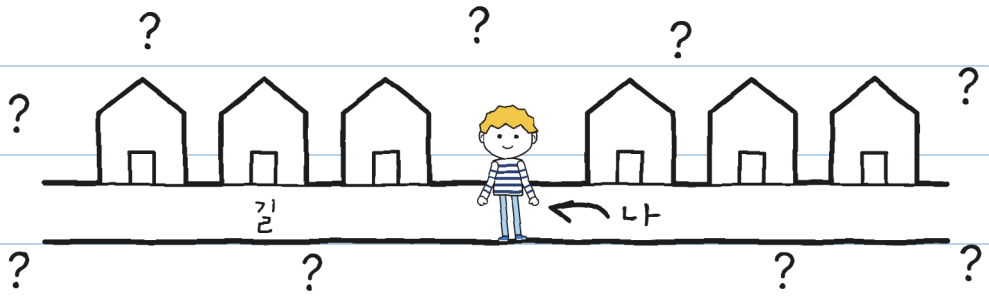


공책이 어디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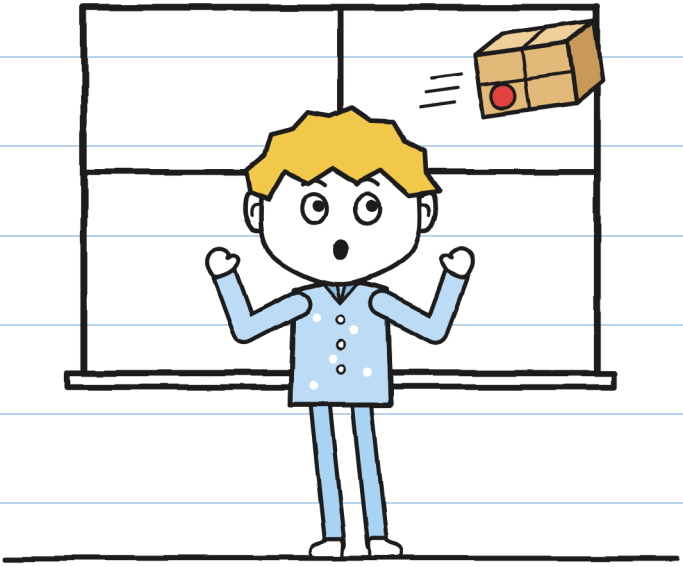
제1장

안 되는 택배

구니는 동네에 새로
와서 친구가 없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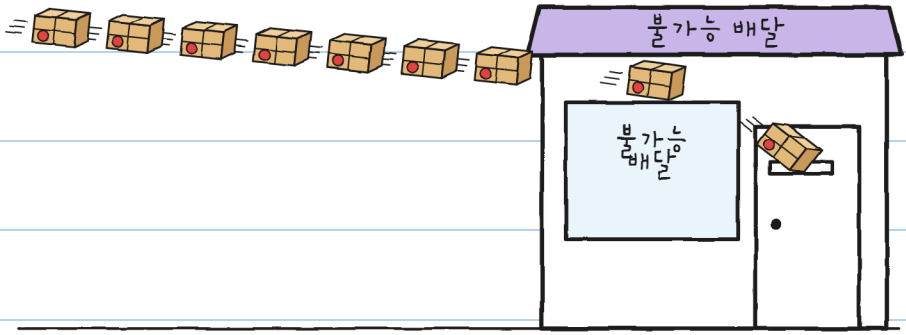


구니는 어디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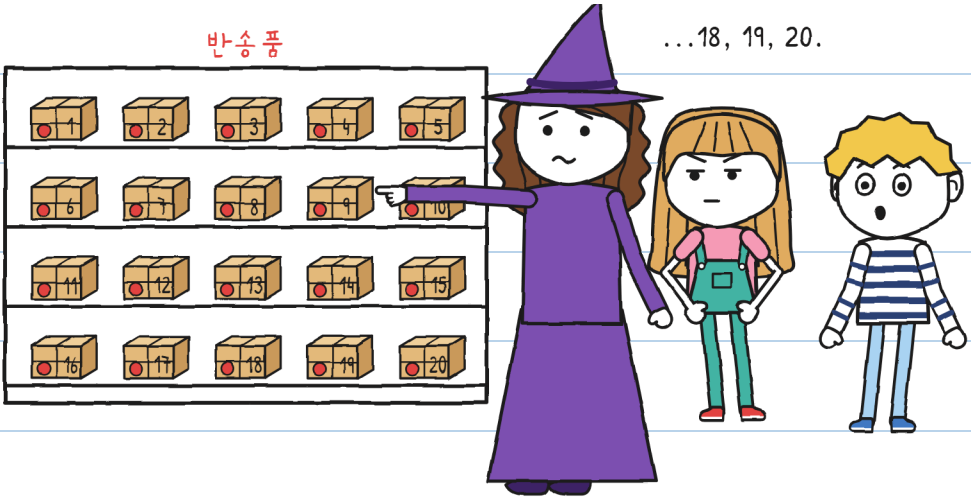


봐, 택배가 날아가!

택배는 어디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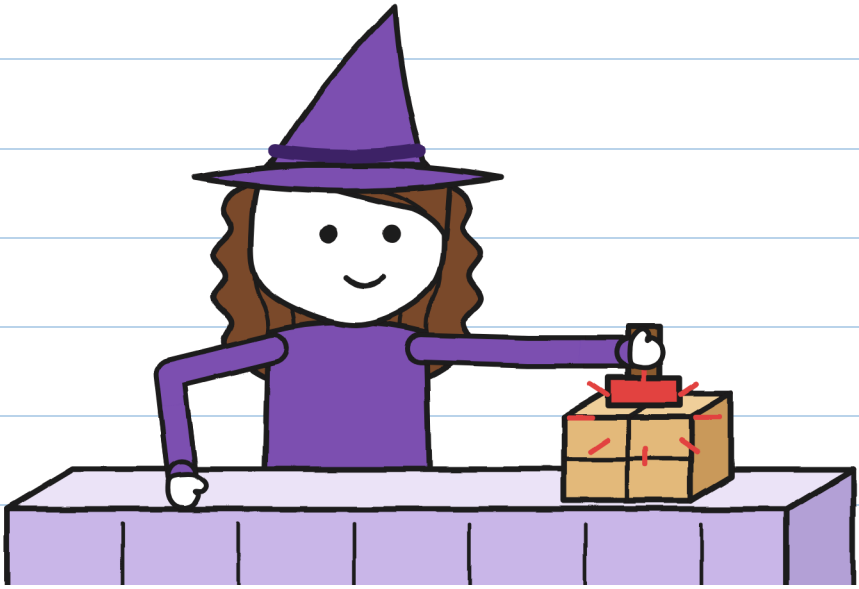


택배가 모두 마라의
선반에 돌아왔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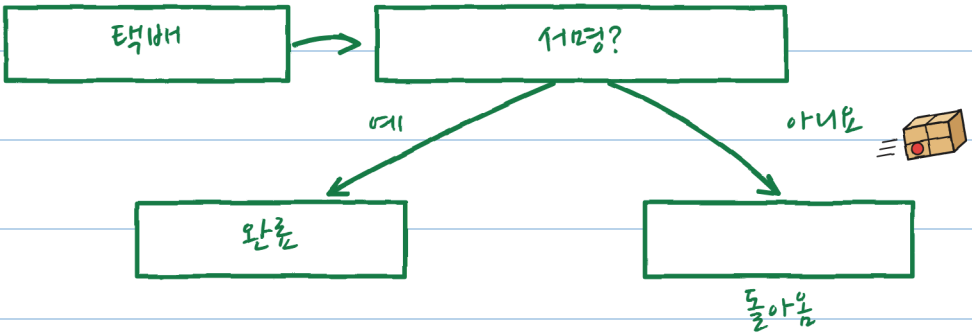


마녀는 어디 있지?

이 사람은 마녀 마라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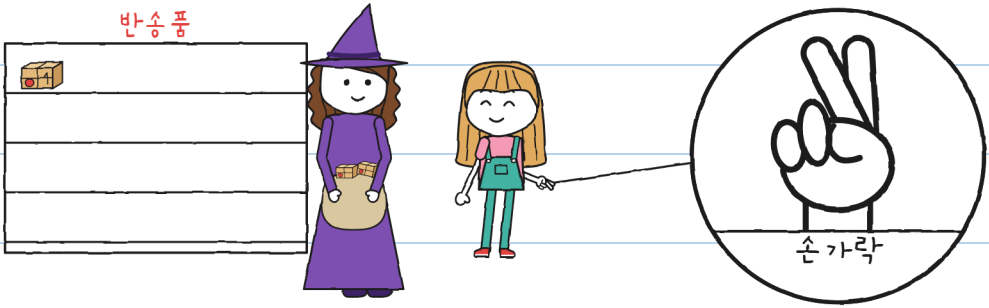
도장은 어디 있지?



마라가 선반에 손대지 말래.

R.

선반은 어디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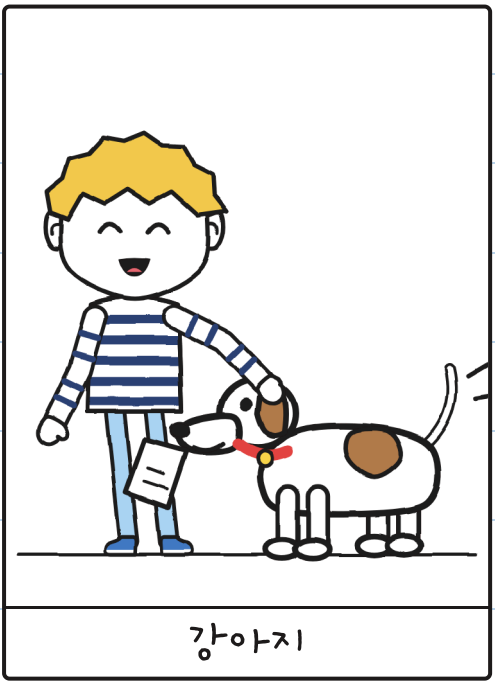


구니는 배달 전문가라고 말해.

강아지는 어디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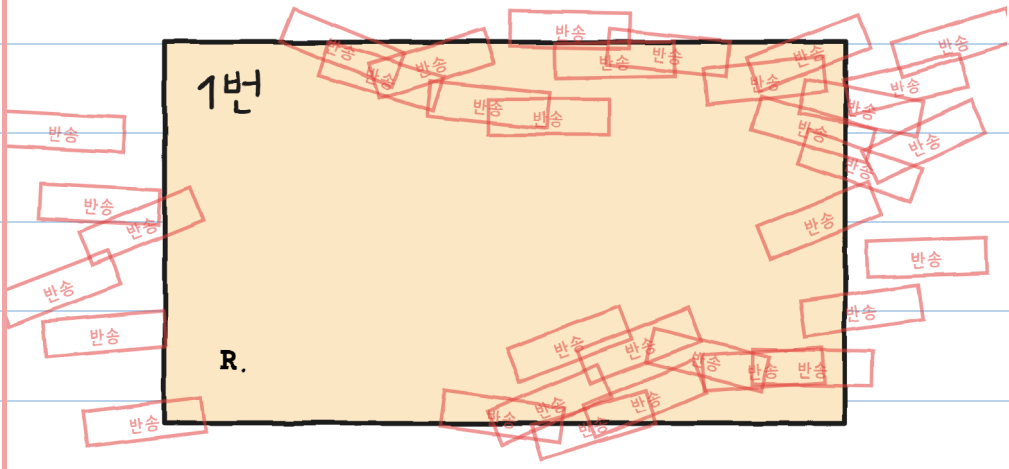


자전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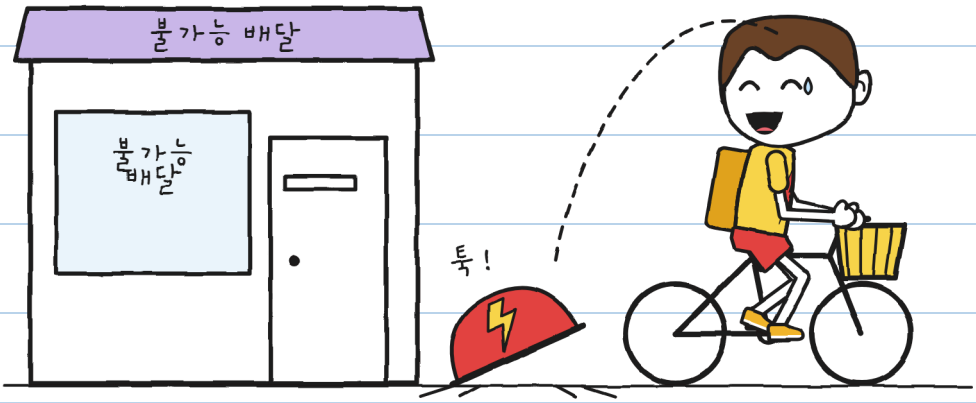
강아지

훌리타가 선반에서 마지막
남은 1번 택배를 꺼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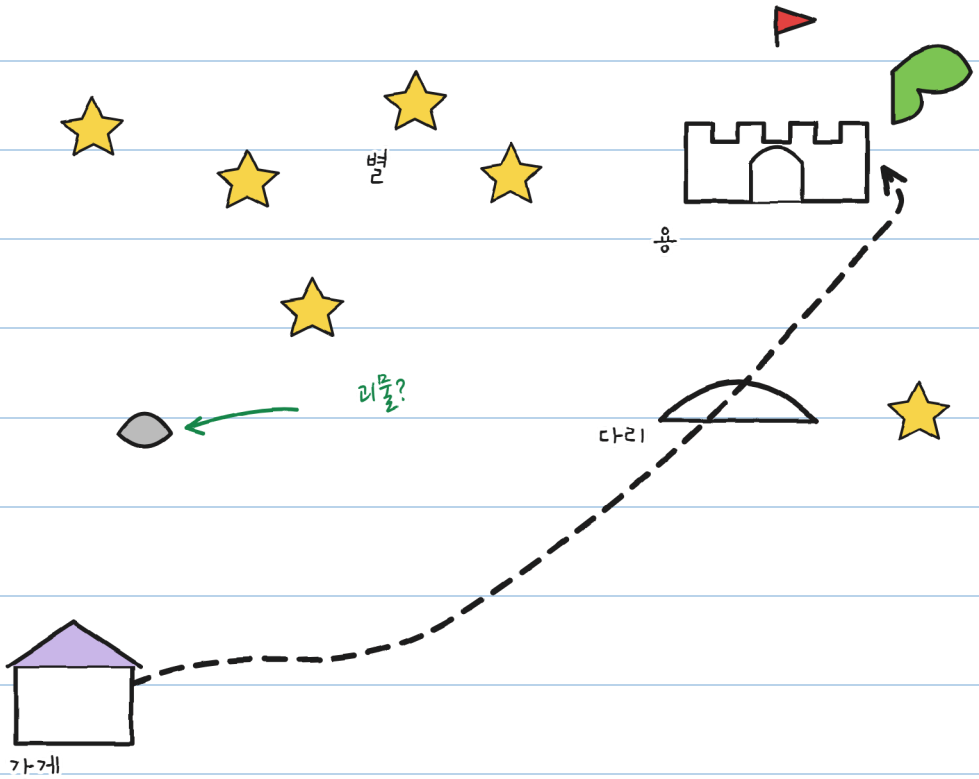
훌리타가 선반에서 꺼낸
1번 택배는 어디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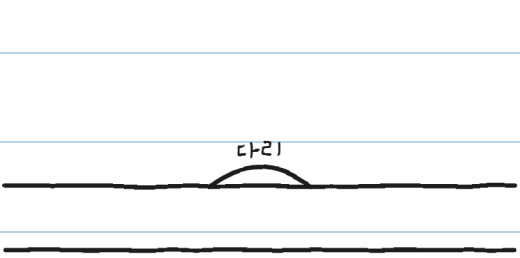
따르릉, 남자아이가 자전거를
타고 노란 가방을 메고 와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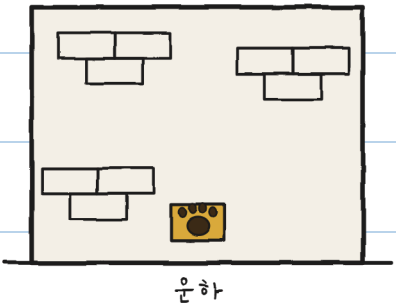


노란 가방을 멘 남자아이의
자전거는 어디 있지?

구니가 약도를 그려.
별은 어디 있지?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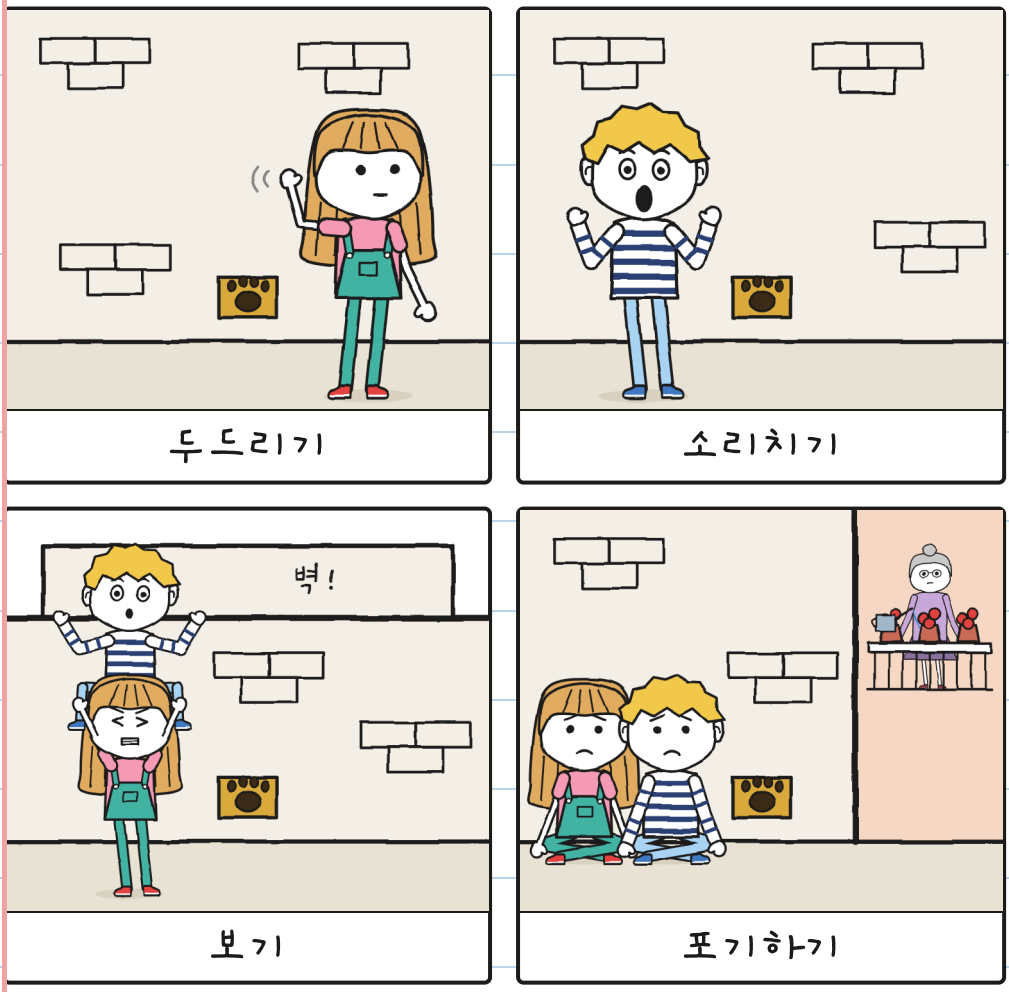
벽이지, 집이 아니야.



판

놋쇠판은 어디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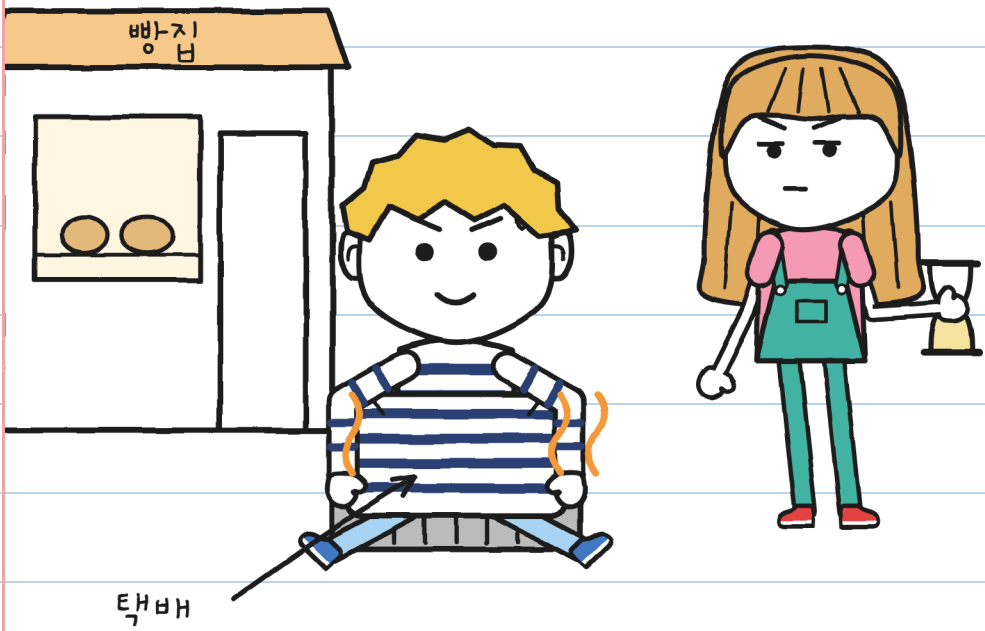
두드리고 소리쳐도 아무 일 없어.



아주머니는 어디 있지?

구니가 택배를 스웨터 안에 넣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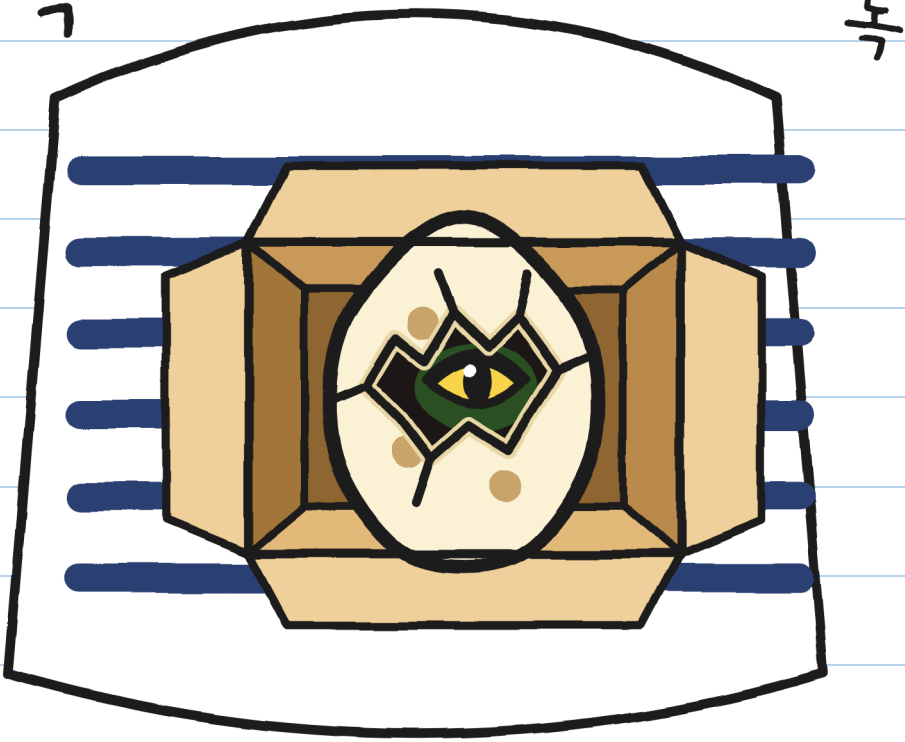
택배는 어디 있지?



택배 안에서 톡톡 소리가 나.

쩍

톡



눈은 어디 있지?

한 이야기, 여섯 가지 사이즈

여섯 가지 사이즈, 20개 넘는 언어.

사이즈 XXS · PRE-A1
에취, 아기 용이 작은 불꽃을 뿜어!

사이즈 XS · A1
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.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.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.

사이즈 S · A2
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.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.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. 그러자 아기 용이 그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.

사이즈 M · B1
나는 평범한 재채기를 했지만,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. 그러고는 탄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.

사이즈 L · B2
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. 그에 비해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그을렸고, 그러고는 태연하게 그 그을린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.

사이즈 XL · B2-C1
삽화 소설 · 13+
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.
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